

삶의 청사진 그려준 풍속사의 고전

문학평론가 김춘식씨가 뽑은
에두아르트 폭스의 《풍속의 역사》



“모든 고상한 것을 평가절하하는 역사적 상대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전체의 행보에 대한 낙관적인 이상주의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문학평론가 김춘식씨(35)에게 《풍속의 역사(전4권)》(에두아르트 폭스, 박종만 외, 까치)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서구의 역사서술에서 배제돼온 '성풍속'의 면면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서술한 이 책은 그 역사철학적 '혁신성'으로 학계에서는 이미 명저 목록에 올랐다. 1989년, 군 체대 후 복학을 준비하던 그는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신문광고를 다룬 부분에서 1870년대의 영국신문이 남녀알선 광고를 노골적으로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귀족은 자신의 여행기간에 시중 들어줄 여인을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구하는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풍속은 신문이 결코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온갖 악습과 변태성욕의 교환을 매개해주던 '뚜쟁이'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풍속의 역사》는 그에게 “역사에 고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사회적 '귀족증명' 없이는 자기정체성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시기였지만 그는 어디에도 가담할 수 없었다. 학생운동의 '구호'도 웬지 '허구'처럼 느껴졌고 그 근거가 되는 가치들 또한 불분명해 보였다. 고상한 것으로 채워져온 역사란 '벽화'가 신물났다. 그런데 폭스의 책은 그런 '신물'을 삼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정신적 힘 또한 제공해줬다.

“폭스의 진보관은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윤리적 진보'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고상한 것을 평가절하하는 역사적 상대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전체의 행보에 대한 낙관적인 이상주의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역사는 '창조'를 향해 전진하며 이 흐름은 마치 거인의 발자국과 같아 막을 수 없다고 폭스는 믿고 있었다. “제도'와 같은 인위적 창조물은 그 거인의 걸음걸이를 재는 '세계시계'”라는 표현도 인류의 진화를 위해 역사나 제도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가는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그에게 《풍속의 역사》는 주체적 삶의 청사진이었던 셈이다.

“개인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가 팽배해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감각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균형잡힌 삶의 감각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풍속의 역사》에 기록된 진보를 향한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 강성민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팸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775 서울·종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계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사터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종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代)